

“개헌 통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겠다”

조국, 당선인들과 민주묘지 참배

원포인트 개헌 위해 국회서 논의 강 시장과 광주지역 현안 간담회 AI·미래 자동차산업 등 해결 협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헌법 수록’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나 광주 현안사업인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2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당선자 12명은 오전 9시께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조 대표는 방명록에 ‘5·18이 헌법전문에 수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조 대표는 참배단으로 이동해 현화한 뒤 윤상원·박기순 열사와 무명열사 묘역을 차례로 찾아 묵념을 올렸다. 준비한 화환을 직접 묘비 앞에 놓은 조 대표는 윤상원·박기순 열사 묘비를 어루만지며 “볼 때마다 괴롭다”고 읊조렸다.

참배를 마친 뒤 조 대표는 민주주의 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조 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해 5·18특별법을 제정했고 모두가 5·18 정신을 계승·존중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5·18을 폄훼하는 망언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5·18 왜곡 발언이 ‘반헌법적’이라는 것이 공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만으로 개헌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조직을 정비하며,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저의 당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집중할 예정”이라며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역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후 광주시청을 방문한 조 대표는 강기정 시장과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다시 한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조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 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강 시장은 먼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AI와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넜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넜다.

이와함께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넜다.

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조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강주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23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내 윤상원 열사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전남도, 식품제조 등 4개사와 557억 투자협약

영광·강진·영암·광양과 협력 100명 일자리 창출 등 기대

전남도가 영광, 강진, 영암, 광양 등 4개 시·군과 협력해 식품제조업체 등 4개 기업과 557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100명 가량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가운뎃리는 영광 대마전기차산단에 133억원을 투자, 과채주스,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신설하고 조은산업은 강진일반산단에 23억원을 투자해 꽃소금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케이씨는 영암 대불국가산단에 43억원을 들여 성토용 골재와 위생매립장 복토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증설하고, 금호폴리캠은 광양 황금산단에 358억 원을 투입해 합성고무제품을 보관할 물류 창고를 건설할 예정이다.

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발달된 농수축산 식품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김 가공과 전복 가공 산업, 감자·고구마 등 과자류 제조업, 유자차 등 과채와 음료, 제조업 등을 고부가가치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 박지혜 기자

#만성약취 #땀냄새 #홀애비냄새 #사춘기냄새 #아빠냄새

냄새 덮지 말고 ‘분해’하세요!

無
실리콘

無
파라벤

100%
VETIVER

냄새제거 팁 공유!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보세요

- 사춘기 냄새? 홀애비 냄새? 땀 냄새? 노인 냄새?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인가?
- 정수리부터 발까지 좋은 냄새와 건강한 냄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몸이 아프면 몸 냄새도 안 건강하지 않을까?

디오도르는 분해효소로 체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씻어내고!
알데히드 체취 분자 분해 효소 함유

예방하고!
덱스판테놀 30,000 ppm

머무는 공간까지!
여름에 악화되는 체취케어

문의전화 1588-8529